

Leading Jeju for the Future

JRI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Policy Issue Brief

2024. 3. 19. vol. **396**

제주어 간판 실태 조사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 제언

:제주시 '신성로',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를 대상으로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권미소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Leading Jeju for the Future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Policy Issue Brief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24. 3. 19. vol.396

발행처: 제주연구원 발행인: 양덕순

주소: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064-729-0500 팩스: 064-751-2168

제주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들이 도출되어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제주어 간판 실태 조사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 제언 : 제주시 '신성로',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를 대상으로

- I. 들어가며
- II. 제주어 간판의 실태
- III. 제주어 간판 사용의 시사점
- IV. 정책 제언

1. 들어가며

-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의 변화로 제주 사람들이 쓰는 제주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음. 제주 사람들이 누대로 써온 제주어가 표준어 정책과 매스컴 등의 발달, 사용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언어에 처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토대로 5년마다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 현재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제주어 보전과 가치 확산을 위한 여러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중 세부 과제 '제주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안내문 및 표지판의 제주어 병기와 정기적인 제주어 사용 환경 조사 및 검토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상호나 차림표 등을 설명하는 간판¹⁾에 제주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일부 거리는 제주어 간판을 활용한 특화 거리로 자리 잡고 있음. 간판에 제주어를 활용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주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며 제주 지역민에게는 친근함을, 외지인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 그 효용성이 큼.
 - 간판은 도시 경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간판들이 어우러져 도로 경관의 질을 결정하고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 또한 간판은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음.
- 그러나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노출되는 간판에서 제주어 오남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잘못된 정보는 제주어의 의미를 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형의 제주어, 왜곡된 제주어를 양산할 수 있어 올바른 제주어 사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제주지역 간판 문화의 특성을 위한 제주어 활용 방안 컨설팅」(2010)과 제주학연구센터의 「옥외광고물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2014) 등이 있음.

1) 이 글에서 간판은 옥외환경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물의 총칭으로 상호와 관련 부제, 메뉴를 설명하는 안내문 등을 포함한 개념임.

- 이 연구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리를 한 곳씩 정하여 제주어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간판에서의 제주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시사점과 함께 향후 제주어 간판을 활용할 때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함.

- 이 연구를 위하여 문헌 검토,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침.
 - 문헌 검토: 2023. 12.~2024. 1.
 - 현장 조사
 - 조사 지점 및 일시: ①제주시 '신성로'(2024. 1. 4.), ②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2024. 1. 9.)
 - 조사 범위: 제주어로 작성된 상호명, 간판 안에 작성된 부제, 가게를 설명하는 안내문 등
 - ※ 이 글에 사용한 사진은 연구진이 현장 조사를 하며 직접 촬영한 것임.
 - 전문가 자문: 국어 및 제주어 전문가 5인
 - 1차: 2023. 12. 18.~12. 25.
 - 2차: 2024. 1. 30.~2. 5.

II. 제주어 간판의 실태

2.1. 제주시 ‘신성로’의 제주어 간판

2.1.1. 제주어 간판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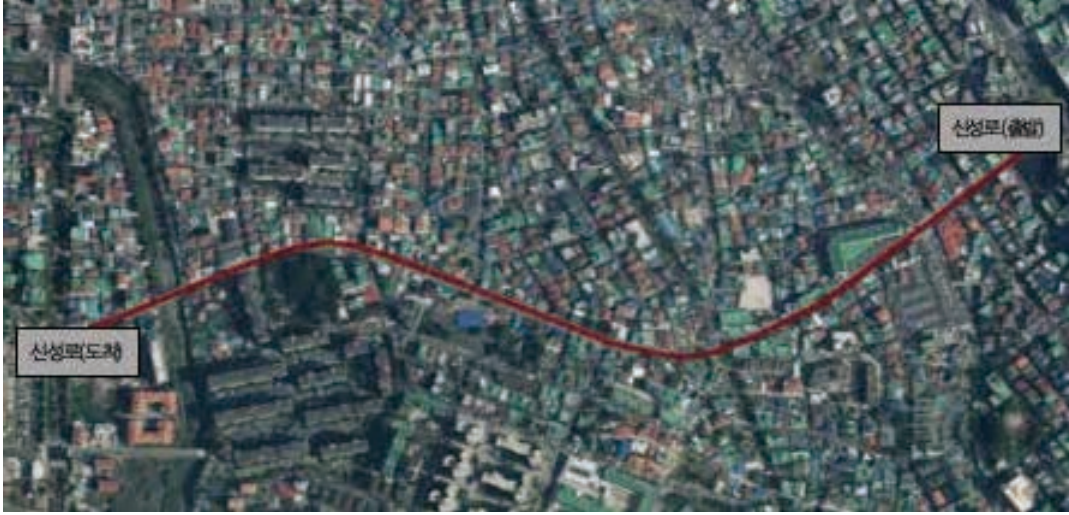
- 제주시 ‘신성로’는 제주시 이도이동의 ‘고산동산’에서부터 제주종합경기장 사거리까지의 거리를 말함. 2018년 제주시가 제주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 업종과 상호의 이미지와 맞는 제주어를 감수하여²⁾ 제주어 문양과 표기를 사용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한 곳임.
- 제주시는 ‘신성로’ 간판 개선 사업을 위해 총 7억 4,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 9월에 도남오거리 동쪽 1차 구간, 2018년 12월에 도남오거리 서쪽 2차 구간의 노후한 간판을 정비하였음.³⁾
 - 1차 구간(고산동산~도남오거리)은 65개 업소·92개 간판, 2차 구간(도남오거리~종합경기장 입구 사거리)은 76개 업소·88개 간판 정비를 진행함.⁴⁾
- 간판에서 제주어 활용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조사 범위는 제주시농협 광양지점(제주시 중앙로 248) 남쪽 출구부터 종합경기장 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제주시농협 오라지점(제주시 오남로 1) 북쪽 출구까지의 약 1,200m이며, 이 구간 내에서 확인한 제주어 간판은 총 120개임.
 - 한 가게에 동일한 상호와 부제⁵⁾를 여러 개 게시한 경우는 각각 1개로 처리하였음. 120개 중에서 상호가 제주어인 경우는 2건, 제주어를 부제로 사용한 경우는 116건, 상가 기둥에 제주어를 표기한 경우는 2건이 확인됨.
 - 2018년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한 간판 수는 141개 업소·180개로 연구진이 조사한 간판 수와 차이를 보임. 이는 이 연구에서 동일한 가게의 동일한 여러 개 간판을 하나로 처리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폐업하여 없어지거나 업종이 바뀐 경우, 간판 정비 사업 이후 개인적으로 추가 제작하여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조사 중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음.

2) ‘제주 이야기 담은 신성로 간판 개선 사업’, 헤드라인 제주, 강유미 기고, 2018. 5. 24. 기사 참조.

3) ‘제주시, 신성로 간판 개선 사업 완료’, 뉴스제주, 박가영 기자, 2018. 12. 26. 기사 참조.

4) ‘제주시 신성로 제주어 문양·표기 간판 거리 변모’, 한라일보, 이윤형 기자, 2018. 12. 26. 기사 참조.

5) 여기서 ‘부제’는 간판 내에 제주어로 가게의 특징을 설명한 문구를 말함.



<그림 1> 제주시 '신성로' 조사 범위⁶⁾

- 제주시 '신성로'의 제주어 간판 중 제주어를 부제로 사용한 경우는 제주방언이라는 표시와 함께 제주어 문양 디자인⁷⁾을 적용하고 있음. 부제는 대부분 문장의 형태이며 가게의 성격에 따른 홍보 문구나 손님을 청하는 문장이 주를 이룸. 조사된 제주어 간판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제주시 '신성로'의 제주어 간판 현황

번호	분류	업종 ⁸⁾	제주어	번호	분류	업종	제주어
1	부제	금융업	혈헌 이자로 후꿈 빌립서.	11	부제	수리 서비스업	세차허레 읍서.
2			흔 폰 두 폰 모이민 큰돈 뵈니께.	12			어떤거 도와드리우짱?
3		어디 아판 읍데가?	13	어디 고장난 와수파?			
4		예, 흔저읍서.	14	츨 좋은거 하수다양			
5		보건업	츨치 치료 받으레 읍서	15		교육 서비스업	곱닥흔 소리 남수다
6			츨치 치료받으레 읍서.	16			모다들영 배워보게
7			한약 먹영 건강 챙깁서.	17			왕 보민 쯔미져마씨.
8		부동산업	땅보레 읍서	18			재기 재기 흔저읍서
9			무엇이든 물어봥서	19			졸바로 베와보게 마씨
10			부동산 사고플 때랑 아래 읍서.	20			행복읏서예

6) 네이버(Naver) 위성 지도를 따온 뒤 지도 위에 조사 범위를 붉은 선으로 표시함.

7) 제주어 문양 디자인은 2017년 제주시가 추진한 '제주어 문양 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제주어를 소재로한 문양 디자인을 만들어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어 보전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작된 것임.

8) 구체적인 상호명을 밝히는 대신 한국 표준 사업 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자료(2017. 1. 13.) 대분류 21개 항목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 제시함. 가령, 두발 미용업(미용실), 피부 미용업(피부 마사지 관리), 마사지업(체형 관리), 세탁업(세탁소),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철학관), 자동차 수리업 등은 대분류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됨.

번호	분류	업종 ⁸⁾	제주어	번호	분류	업종	제주어
21	부제	교육 서비스업	헌디 모영 배와보게.	58	부제	스포츠 서비스업	쿿대 혼 번 잡아보시쿠가
22			헌저읍서	59		협회 및 단체	소원성취합서
23		음식점업	각종회 이수다	60		헌저읍서에	헌저읍서에
24			놀명쉬멍	61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일 허젠 허난 폭삭 속아수다.
25			들어왕 봄써	62			눈벨랑 봄써
26			뜻뜻헌게 먹기 츠 좋앗수다.	63		여가 관련 서비스업	노래 소리가 좋수다
27			맛 좋은 거 싯수다.	64			노래 소리가 좋수다.
28			바릇궤기 먹영갑서	65			노래 소리가 좋수다.
29			배 빵그랭이 먹읍서	66			놀당 갑서
30			빵그랭이 먹영갑서.	67			지금 즘이 람수광?
31			오닐 모다들영 술 혼잔 협주.	68		사업지원 서비스업	어드레 감수광?
32			오닐 술 혼 잔 협주	69			요기우다
33			오닐 술 혼잔 협주	70			헌저 읍서
34			오닐 술 혼잔 협주	71		기술 서비스업	눈 벨랑 봄써
35			오젠 허난 폭삭 속아수다.	72			곱닥허게 찍읍수다.
36			잘도 맛종덴 후여	73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고슬락 고슬락 허우다
37			재기재기 헌저읍서	74			고슬락 허우다
38			재기재기 헌저읍서	75			고슬락고슬락 막 곱수다.
39			재기재기 헌저읍서	76			곱게 허쿠다
40			재기재기 헌저읍서.	77			곱닥 허우다
41			춧아칭 고맙수다	78			곱닥 허우다
42			춧아칭 고맙수다	79			곱닥헌 얼굴 맨들어봄써.
43			쿠시롱헌 내음살 남수다.	80			곱들락허게 머리 손질 해수다.
44			쿠시롱헌 냄새 남수다.	81			곱들락허게 머리 손질 해수다.
45			하영덜 읍서	82			눈벨랑 봄써
46			헌저읍서에	83			모다들영 읍서.
47			헌저 읍서	84			몸에 쌓인 피로 풀영 갑서.
48			헌저읍서	85			서답힐 옷 놔뵤 감수다
49			헌저 왕 먹영 갑서	86			손콰 손질허레 읍서.
50			헌저 왕 먹영 갑서.	87			수선힐 옷 그정 왓수다
51			헌저 왕 먹읍서	88		옷 수선허레 읍서.	
52			헌저 왕 먹읍서	89		좋은날 보레 읍서	
53			헌저 왕 먹읍서	90		좋은날 보레 읍서.	
54			헌저 왕 먹읍서에.	91		피로 풀영 갑서	
55			헌저 왕 밥 먹읍서.	92		하영 깨끗허여젿수다	
56			헌저왕드싯써	93		하영 깨끗허여젿수다	
57			스포츠 서비스업	당구 쿿대 혼번 잡아보쿠가		94	소매업

번호	분류	업종	제주어	번호	분류	업종	제주어		
95	부제	소매업	굽닥헌 옷 싣수다	108	부제	소매업	맛 좋은 반찬 싣수다		
96			꽃질만 걸읍서	109			숨태움수다		
97			놀명쉬멍/돌코롬후다	110			왕봄서!		
98			눈 벨랑 봄서.	111			좋은 거 하수다.		
99			눈벨랑 봄서	112			코시롱 흔게 먹구정허우다.		
100			들렁댕기는 으망진 전화기 얼마우과?	113			펜안허우과?		
101			눈벨랑 봄서	114			흔저읍서예		
102			덕세기 이수다	115			흔저읍서예		
103			돌코롬후다	116			흔저읍서예		
104			돈돈헌 문 돌아 보쿠가.	117			기동	소매업	골라 봄서. 좋은 물건 많수다.
105			뜻뜻헌게 먹기 참 좋앗수다.	118					왕 봄서. 물건이 하영 싣수다.
106			맛 좋은 거 먹어신게양.	119			상호	소매업	놀명쉬멍
107			맛 좋은 케기 핫수다.	120					올레

2.1.2. 제주어 간판의 오류 사례

○ 제주시 ‘신성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주어 간판을 분석해 보면, 아래아(·)와 된소리 표기의 오류, 띄어쓰기의 오류, 어색한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주어 표기의 오류는 아래아(·)를 잘못 사용한 경우와 제주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가 대표적임.

- 아래아(·)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남. 아래아(·)를 쓰지 않는 단어인데 과도하게 아래아(·)를 사용하여 ‘빙그랭이’를 ‘뵙그랭이’처럼 쓴 경우, ‘흔저’처럼 아래아(·) 소리가 있는 어휘인데 다른 모음을 써서 ‘흔저’처럼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임.

- 제주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는 표준어 ‘-(으)십시오’에 해당하는 제주어 ‘-(으)브서’를 된소리 표기한 예가 대표적임. 즉, ‘-(으)브서’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어야 함. 그러나 간판에서는 ‘봄써, 드십써’처럼 사용한 경우가 확인됨.



<사진 1> 제주어 간판에서의 아래아(·) 및 된소리 표기 오류

○ 제주어로 쓸 때도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준하여 써야 하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의존명사 ‘것’ 혹은 ‘거’, ‘것이’의 줄임말로 사용된 ‘게’는 앞말과 띄어서 써야 함. 그러나 ‘뜻뜻헌게’, ‘코시롱헌게’처럼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본동사와 보조동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도 있음. 각각 의미를 갖고 있는 본동사가 두 개 이상 연속되는 경우, ‘왕 복서(와서 보십시오.)’, ‘놀멍 쉬멍(놀면서 쉬면서)’ 등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함.
-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해서 원래 의미와 멀어지거나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여 붙여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임. 가령, 부동산 등에서 땅을 본다는 의미로 사용한 ‘땅보다’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하고, ‘냄새나다’는 하나의 단어로 ‘냄새남수다’, ‘내음살남수다’처럼 붙여 써야 함.
- ‘곱닥 허우다’, ‘코시롱 훈’과 같은 경우는 ‘허다/허다’가 결합하는 경우로 앞의 어간에 붙여 써야 함.



<사진 2> 제주어 간판에서의 띄어쓰기 오류

○ 가게의 특징을 설명하는 제주어 부제 중 제주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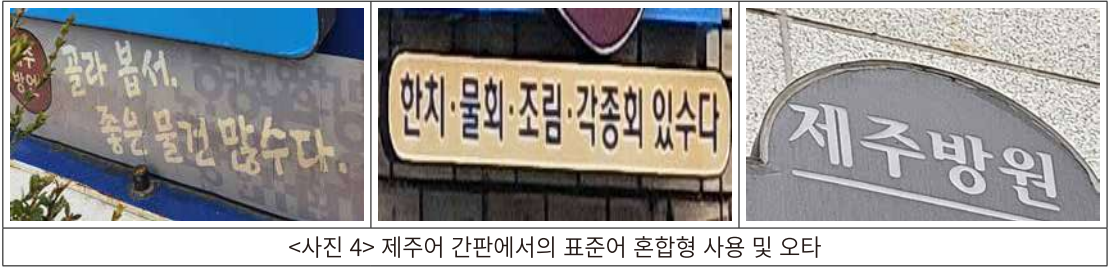
- ‘목화를 씨아로 틀어서 씨를 빼내고 활줄로 튀기어 퍼지게 하다.’의 의미인 표준어 ‘태우다’에 현재진행형과 높임 표현이 결합될 경우에는 ‘태웁수다’처럼 사용하는데 간판에는 어색한 표현인 ‘태웁수다’가 제시되어 있음.
- 제주어에서 ‘도와드리다’의 뜻으로 의문형 높임 표현을 쓰고자 할 때는 ‘도와드리카마씨?’ 또는 ‘도와안네카마씨?’처럼 사용해야 하나 ‘도와드리우팜?’과 같은 어색한 표현이 나타남.



<사진 3> 제주어 간판에 사용된 어색한 표현

○ 자주 사용하는 제주어형이 존재함에도 표준어형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와 단순한 오타처럼 보이는 경우가 확인됨.

- ‘많다’나 ‘있다’는 제주에서 ‘하다’, ‘이시다/시다’라고 하는데 ‘좋은 물건 많수다’, ‘각종 회 있수다’처럼 표준어와 제주어 어미를 결합한 형태의 표현을 쓴 경우가 있음.
- 부제로 사용한 제주어 간판의 경우는 별도의 말풍선이나 다양한 도형의 형태로 간판을 제작하여 ‘제주방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방원’이라는 오타를 그대로 게시한 경우가 확인됨.



<사진 4> 제주어 간판에서의 표준어 혼합형 사용 및 오타

2.2.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의 제주어 간판

2.2.1. 제주어 간판의 개요

-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는 ‘알면 좋을 거리’라는 뜻을 가진 서귀포시 천지동 먹거리 골목을 말함.⁹⁾ 거리명에서부터 제주어가 활용된 이곳은 2005년 천지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음식 특화 거리로, 2013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한편, 2023년 9월 8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고시되었음.¹⁰⁾
- ‘아랑조을거리’는 2013년에 1번가의 간판 104개, 2015년에 2번가의 간판 108개, 총 212개에 달하는 간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개선 사업¹¹⁾을 실시함. 이 사업은 음식 특화 거리 이미지에 맞는 특색 있는 간판으로 교체해 거리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 간판 및 네온 조명 간판을 고효율의 엘이디(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한 데 2차적인 목적을 두었음. 이때 본격적으로 간판에 제주어를 활용하게 된 것으로 보임.
- 간판에서의 제주어 활용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조사 범위는 ‘아랑조을거리’ 1번가(860m)와 2번가(1,000m)에 달하는 약 1,860m이며, 이 구간 안에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은 총 42개로 확인됨.
 - 42개 간판 가운데 상호가 제주어인 경우는 15건, 제주어를 부제로 사용한 경우는 26임. 단, 거리명으로 쓰인 ‘아랑조을거리’ 역시 제주어 간판에 포함하여 조사 범위 내 제주어 활용 간판을 42개로 계산하였음.
 - 2013년, 2015년 간판 정비 사업을 벌인 곳 가운데 폐업을 하여 없어지거나 업종이 바뀐 경우, 간판 정비 사업 이후 개인적으로 추가 제작하여 제주어를 게시한 경우, 조사 중 누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¹²⁾

9) ‘아랑조을거리’는 1번가(2006년 조성, 천지로), 2번가(2009년 조성, 서문로 29번길), 3번가(2017년 조성, 중앙로 47번길), 4번가(2017년 조성, 중앙로 59번길)가 있음. 서귀포시 천지동 누리집-아랑조을거리 상가변영회 현황(2021. 11. 10.) 자료 참조.

10) 서귀포시청 누리집-서귀포 소식·새소식 자료 참조.

11) 1차 시기인 2013년에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간판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 총 860m 거리의 아랑조을거리 1번가 및 이면도로 포함 104개 점포, 128개 간판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6,300만 원을 지원받아 간판 교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2차 시기인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간판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 아랑조을거리 2번가 및 이면도로 포함 1,000m 구간 내 108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400만 원을 지원받아 간판 디자인 및 설치를 진행하였다고 함.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점포 간판 새단장’, 2015. 7. 24. 기사 참조.

12) 아랑조을거리 상가변영회 현황(2021. 11. 10.) 자료에 따르면 아랑조을거리 내에는 음식점 136개소(48%), 숙박업 35개소(12%), 유흥업 42개소(15%), 기타 업소(25%) 69개소로 총 282개의 점포가 있다고 함. 그러나 이들 점포 모두에서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그림 2>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조사 범위

-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의 제주어 간판 중 제주어를 부제로 사용한 경우는 상호명 왼쪽 또는 오른쪽을 활용해 상호명보다 작은 글씨로 가게의 특징과 관련 있는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음. 조사된 제주어 간판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음.

<표 2>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의 제주어 간판 현황

번호	분류	업종	제주어	번호	분류	업종	제주어
1	거리명	기타	아랑조을거리	10	부제	음식점업	와시냐?
2	부제	음식점업	꼬끼오 불럼수다	11			잘도 시원허우다
3			놀당갑서 쉬엄갑서	12			절로 심이 솨맛찌
4			놀멍 쉬멍 걸으멍, ○○ ¹³⁾ 에 서 먹어봅주	13		제주갈치가 최고주게!	
5			맛좋은 냉기지말라	14		○○에서 바로 온 거난~ 밍영 드십써!	
6			돈딱 구웁 먹게	15		돌코롬햄수다	
7			부드러웁 녹암수다!	16		맛이영 영양이영 최고마쌌!	
8			씹어봅서, 코시롱허난!	17		몸이영 무음이영 건강허메	
9			오널도 심내십서!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 햐수다!	18		소매업	무신 떡 사레 읍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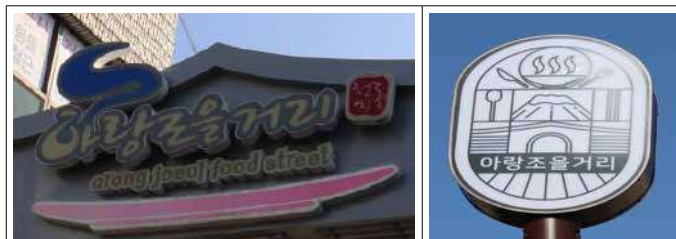
13) 표에서 나타나는 '○○' 등의 표시는 상호명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특정 상호임을 밝혀 버리는 경우를 막고자 한 숨김 처리임.

번호	분류	업종	제주어	번호	분류	업종	제주어
19	부제	소매업	싱싱헌 야채 있수다	31	상호	음식점업	돛○
20			쌀, 담배 잡화 문딱 있수다!	32			맨도롱 ○○○
21			웃으멍 살게마쌌	33			삼춘○○
22		부동산업	좋은디싸게 빌려드리쿠다!	34			술푸대기○○
23			숙박업	귀경와시냐			35
24		좋은 곶 곶서		36			아랑조은○○○
25		여가 관련 서비스업	볼거리는 없어도 한번은 와 봅서예! 노래는 들을만 허우다.	37		부동산업	깨끗하고 좋은집 있수다
26				지꺼지게 놀다 가젠?			38
27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바짝 몰려 안네쿠다	39		숙박업	꼬닥꼬닥○○
28		상호	음식점업	○○글라			40
29	낭○낭○			41	올레○○○		
30	닐모리○○			42	여가 관련 서비스업	풍낭○○	

- ‘아랑조을거리’에는 위에서 밝힌 상호, 부제로의 간판 외에 가게 소개와 특징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총 29곳의 가게 입구, 문 등에 패널 형태로 부착되어 있음. 이 가운데 27곳은 음식점, 2곳은 유통회사로 확인됨.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2.3.에서 다룸.

2.2.2. 제주어 간판의 오류 사례

-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주어 간판을 분석해 보면, 아래아(·) 및 된소리 등 표기의 오류, 띄어쓰기의 오류, 어색한 표현 등이 확인됨.
- 제주어 표기의 오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와 아래아(·)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확인됨.
 - 문자로 쓸 때 어원이 분명한 것은 형태를 밝혀 적어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사지 않게 함. 거리명 ‘아랑조을거리’는 ‘알아서 좋을 거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알앙 좋을 거리’처럼 써야 함.



<사진 5> 제주어 간판에서의 제주어 형태론적 표기 오류

- 아래아(·)를 사용해야 하는 단어임에도 아래아(·)를 표기하지 않고 ‘ㄱ’의 형태로 쓰인 경우가 있음. ‘모두, 몽땅’의 의미를 가리키는 제주어는 ‘문딱’처럼 아래아(·)로 표기해야 하나 ‘ㄱ’로 쓰인 경우가 확인됨.
- 제주어에서 ‘하다’는 ‘후다/허다’처럼 나타나므로 ‘후다’나 ‘허다’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깨끗하다’는 ‘깨끗후다’ 혹은 ‘깨끗허다’ 형태로 표기해야 함.
- 발음이 된소리로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어야 함. ‘-(으)ㅂ서’는 표준어 ‘-(으)십시오’에 해당하는 제주어임. 즉, [머급써], [웁써]처럼 발음되어도 ‘먹읍서’, ‘웁서’로 써야 함.



<사진 6> 제주어 간판에서의 아래아(·) 및 된소리 표기 오류

○ 제주어를 표기할 때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준하여 써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됨.

- 하나의 단어가 아닐 경우 각각을 띄어 써야 하는데 ‘맛 좋다’, ‘냉기지말라’, ‘구경와시냐’처럼 붙여 쓴 형태로 제시되어 있음.
-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임. ‘좋은디’에서 ‘디’는 표준어 ‘데’에 해당하는 의존명사로 ‘좋은 디’처럼 띄어 써야 함.



<사진 7> 제주어 간판에서의 띄어쓰기 오류

○ 제주어에서 종결어미를 잘못 사용하면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음.

- 제주어 ‘돌코롬후다/돌코롬허다’는 표준어 ‘달콤하다’에 해당하는 말로, 표준어에서 ‘달콤한다’와 같은 형태로 쓰지 않는 것처럼 제주어에서도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돌코롬햐수다’는 사용하지 않음.



<사진 8> 제주어 간판에 사용된 어색한 표현

2.2.3. 제주어 안내문의 오류 사례

- ‘아랑조을거리’의 제주어 안내문¹⁴⁾은 거리에 대한 설명과 주변을 홍보하는 ‘공통 문구’, 주요 차림표에 따른 ‘가게 소개와 특징’을 안내하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음. 이 안내문은 대부분 향아리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가게 입구에 게시됨.
- 이들 안내문이 있어 상호명 및 상호주변에 제시된 제주어와 더불어 ‘아랑조을거리’가 제주어 특성화 거리라는 장점이 부각됨. 그러나 안내문 가운데 문장이 어색하거나 제주어 표기가 잘못된 경우,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잘못되거나 글자를 잘못 쓴 경우 등이 많아 소멸 위기 제주어를 왜곡하거나 잘못 홍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표기가 필요해 보임.
- 2.2.3.에서는 29곳의 가게 안내문 가운데 공통 문구와 가게 특징을 설명한 2건의 오류 사례를 분석하여 제주어 표기 및 띄어쓰기의 오류, 어색한 표현 등으로 구분하여 밝힌 후에 수정(안)을 보이고자 함. 29곳의 가게 안내문 가운데 오류가 없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어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도 안내문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내문 문구 가운데는 표준어의 오류도 상당하여 이들에 대한 오류도 함께 제시함.
- 공통 문구는 가게를 방문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글로 이루어짐. 제주어를 크게 쓰고, 그 아래에 표준어와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붙이고 있음.



<사진 9> ‘아랑조을거리’ 안내문의 공통 문구

- 공통 문구에서는 제주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 제주어와 표준어의 대응이 잘못된 경우 등이 확인됨.
 - 어원이 분명한 것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고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함. 즉 ‘차’는 ‘차’, ‘알다’ 등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차자와짙’은 ‘차아와 짙’으로, ‘아랑’은 ‘알앙’처럼 표기해야 함.
 - ‘뽕꼬랑이’와 ‘배부르게’는 일대일 대응이 안 되는 어휘임. 따라서 표준어에 ‘뽕꼬랑이’를 대역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 쓰거나 제주어에 사용된 ‘뽕꼬랑이’를 ‘배불르게’처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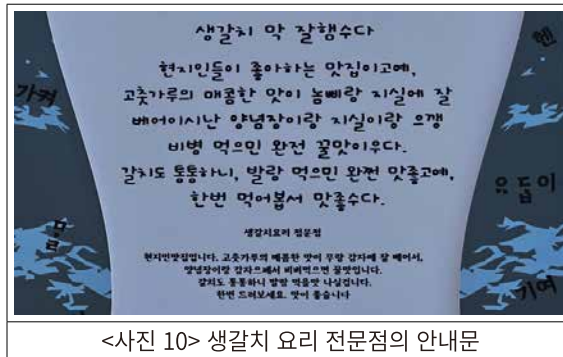
14) 여기에서 ‘안내문’은 가게 문 따위에 붙어 있는, 가게를 홍보하는 설명문을 말함.

○ 가게 특징을 설명한 안내문은 제주어 표기나 어색한 표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어 설명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발견됨. 안내문 위쪽에는 제주어 설명이 있고 아래쪽에는 표준어로 쓰여 있음.

○ 공통 문구를 담은 안내문을 수정해 보이면 다음과 같음. (※표준어의 오류도 바로잡아 제시함)

안내문 수정 전	안내문 수정 후
<p>차자와칭 고맙습니다. 안트레 들어왕 뽕꼬랑이 먹곡 천지힐링길, 매일올레시장도 걸으멍 지꺼지게 놀당 갑서.</p> <p>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배부르게 먹고 천지힐링길, 매일올레시장도 걸으면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p> <p>* 아랑조를 거리 : 서귀포 대표 먹거리 골목 * 천지힐링길 : 도심, 산, 바다, 오름, 공원 모두 통하는 아름다운 산책길</p>	<p>춧아칭 고맙습니다. 안트레 들어왕 ‘뽕꼬랑이’ 먹곡 천지힐링길, 매일올레시장도 걸으멍 지꺼지게 놀당 갑서.</p> <p>찾아와 줘서 고맙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뽕꼬랑이’ 먹고 천지힐링길, 매일올레시장도 걸으면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p> <p>* 알양종을거리: 서귀포 대표 먹거리 골목 * 천지힐링길: 도심, 산, 바다, 오름, 공원 모두 통하는 아름다운 산책길</p>

○ [사례 1]은 생갈치 요리 전문점을 설명하는 안내문임.



<사진 10> 생갈치 요리 전문점의 안내문

○ 이 가게의 특징을 설명하는 제주어 문구에서는 아래아(·),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에서 오류가 나타나고 어색한 표현도 몇몇 확인됨.

- ‘뽕뽕’은 아래아(·)를 사용해서 ‘뽕뽕’이라고 써야 하는 단어임에도 아래아(·)를 표기하지 않고 ‘고’의 형태로 쓰고 있음.
- 제주어도 「한글 맞춤법」에 준하여 단어와 단어는 띄어 써야 함에도 ‘배어있사난’, ‘한번 먹어봅서 맛중수다.’처럼 붙여 쓰는 형태가 보임.
- 설명하는 문장을 마칠 때에는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 주는 부호인 마침표(.)를 찍어야 함. 즉, ‘잘함수다.’, ‘먹어 봅서.’, ‘맛 좋수다.’처럼 써야 함. 단, 제목에서는 마침표(.)를 생략할 수 있음.

- 가게의 입장에서 쓴 설명문이라면 '생갈치 막 잘함수다'가 아니라 '생갈치 막 잘합네다.'처럼 쓰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생갈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갈치'를 이용하여 어떤 요리를 잘하는지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갈치 요리 막 잘합네다.'처럼 문장을 수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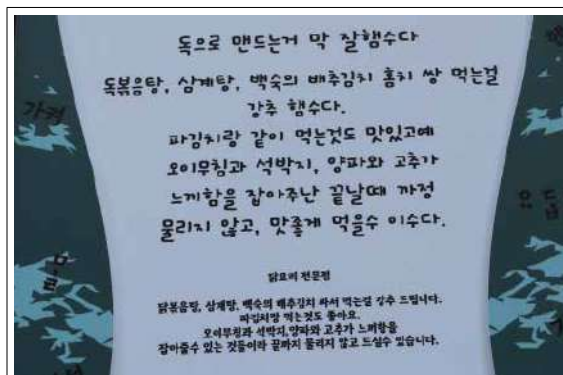
○ 가게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준어 설명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확인됨.

- '배어서(배어서)', '발람(발라서)', '줍습니다.(줍습니다.)', '드려보세요.(드셔 보세요.)'는 교정을 제대로 보지 않아 나타난 오류로 보이며 '감자으꺼서', '비벼먹으면', '먹을맛' 등은 띄어 써야 함에도 붙여 쓴 경우임.

○ [사례 1]의 안내문을 수정해 보이면 다음과 같음. (※표준어의 오류도 바로잡아 제시함.)

안내문 수정 전	안내문 수정 후
<p>생갈치 막 잘함수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이고예, 고춧가루의 매콤한 맛이 농빠랑 지실에 잘 배어이시난 양념장이랑 지실이랑 으깬 비벼 먹으면 완전 꿀맛이우다. 갈치도 통통하니, 발랑 먹으면 완전 맛종고예, 한번 먹어봅서 맛종수다.</p> <p>생갈치요리 전문점</p> <p>현지인맛집입니다. 고춧가루의 매콤한 맛이 무랑 감자에 잘 배어서, 양념장이랑 감자으꺼서 비벼먹으면 꿀맛입니다. 갈치도 통통하니 발랑 먹을맛 나실겁니다. 한번 드려보세요. 맛이 좋습니다.</p>	<p>생갈치 요리 막 잘합네다. 현지인덜이 좋아후는 맛집이우다. 고춧그를의 맵지롱흔 맛이 농빠영 지실에 잘 배영 이시난 으깨영 양념장에 비벼 먹으면 완전 꿀맛이우다. 갈치도 통통하니 발랑 먹기 종곡, 맛도 완전 종수다. 한번 먹어 봅서. 맛 종을 거우다.</p> <p>생갈치 요리 전문점</p> <p>생갈치 요리 아주 잘합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입니다. 고춧가루의 매콤한 맛이 무랑 감자에 잘 배어 있으니 으꺼서 양념장에 비벼 먹으면 완전 꿀맛입니다. 갈치도 통통하니 발라 먹기 종고, 맛도 아주 종습니다. 한번 드셔 보세요. 맛 종을 겁니다.</p>

○ [사례 2]는 닭 요리 전문점을 설명하는 안내문임.



<사진 11> 닭 요리 전문점의 안내문

○ 이 가게의 특징을 제주어로 설명하는 문구에서는 아래아(·), 띄어쓰기, 문장부호에서 오류가 나타나고, 어색한 표현도 확인됨.

- '닭'을 뜻하는 제주어 '독'은 아래아(·)를 사용해야 하는 단어임에도 아래아(·)를 표기하지 않고 '독'으로 쓰고 있어 다른 의미를 가진 요리로 오해를 살 수 있음. 또한 '흠치', '까정'은 '흠치', '까정'으로 표기해야 하나 '고' 또는 'ㅏ'로 아래아(·) 어휘를 수정해 버려 제주어의 맛을 잘 살리지 못함.
- 띄어쓰기는 한 단어가 아닌 경우에 각각을 띄어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함. 이 안내문에서 '맨드는거', '끝날때 까정' 등은 '맨드는 거', '끝날 때까정'으로 수정되어야 함.
-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려고 할 때는 마침표(.),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는 쉼표(,)를 써야 함. '파김치랑 같이 먹는것도 맛있고예'와 같은 문장은 '파김치영 같이 먹는 것도 맛 좋고예, 처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함.
-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백숙을 배추김치에 싸 먹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으로 읽힘. 따라서 '백숙의'를 '백숙을'로 바꾸고, '한꺼번에'라는 의미인 '흠치'는 '함께'를 나타내는 '훈디'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안내문에서 제주어 외에도 표준어를 병기한 부분에서 다수의 오류가 확인됨. 특히 띄어쓰기의 경우 '먹는 걸', '먹는것도', '먹을수', '잡아줄수', '드실수' 등은 '거'나 '것', '수'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함.

○ [사례 2]의 안내문을 수정해 보이면 다음과 같음. (※표준어의 오류도 바로잡아 제시함.)

안내문 수정 전	안내문 수정 후
<p>독으로 맨드는거 막 잘햄수다 독볶음탕, 삼계탕, 백숙의 배추김치 흠치 쌍 먹는걸 강추 햄수다. 파김치랑 같이 먹는것도 맛있고예 오이무침과 석박지, 양파와 고추가 느끼함을 잡아주난 끝날때 까정 물리지 않고, 맛 좋게 먹을수 이수다.</p> <p>닭요리 전문점</p> <p>닭볶음탕, 삼계탕, 백숙의 배추김치 싸서 먹는걸 강추 드립니다. 파김치랑 먹는것도 맛있고. 오이무침과 석박지, 양파와 고추가 느끼함을 잡아줄수 있는 것들이라 끝까지 물리지 않고 드실수 있습니다.</p>	<p>독궤기로 맨드는 거 막 잘햄네다. 독볶음탕, 삼계탕, 백숙을 누물김치에 훈디 쌍 먹는 걸 추천후엿수다. 파김치영 궤찌 먹는 것도 맛 좋고예, 오이무침랑 섞박지, 양파랑 고치가 궤기의 늘크랑흔 걸 잡아 주난 식사 끝날 때까정 물리지 아녕 맛 좋게 먹을 수 이수다.</p> <p>닭 요리 전문점</p> <p>닭고기로 만드는 거 아주 잘합니다. 닭볶음탕, 삼계탕, 백숙을 배추김치에 같이 싸서 먹는 걸 추천합니다. 파김치랑 같이 먹는 것도 맛 좋고요, 오이무침과 섞박지, 양파와 고추가 고기의 느끼한 것을 잡아 주니 식사 끝날 때까지 물리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p>

III. 제주어 간판 사용의 시사점

-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제주시 ‘신성로’와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제주어를 간판에 활용한 사례로 제주시 ‘신성로’에서 120개,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에서 간판 42개와 안내문 29개를 확인함.
- 조사 대상인 두 거리는 제주어를 간판에 표기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음. 또한 두 거리는 제주의 지역색을 잘 보여 주고 있어 제주어 간판 거리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업종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 독창적인 표현이 제주어 부제로 사용된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끌.
 - 일률적으로 동일한 표현(‘흔저 읍서’) 등이 제시되거나 업종과 관련 없는 표현이 게시된 경우도 없지 않으나 ‘바릇 궤기 먹영 갑서.’(식당), ‘고슬락 고슬락 막 곱수다.’(미용실) 등과 같이 제주어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도 다수 있음.
 - ‘어디 아판 읍데가?’(병원), ‘들렁 땡기는 으망진 전화기 얼마우파?’(휴대폰 판매), ‘독새기 이수다.’(계란 판매), ‘서답힐 옷 뇌똥 갑수다.’(세탁소)처럼 업종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 제주어 표현도 눈에 띈.
- 대체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제주어 간판을 게시하고 있으나 제주시 ‘신성로’의 경우에는 은행, 절, 자동차 서비스센터 등에서도 제주어 간판이 확인되었음. 이는 공공기관이나 체인점에서도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임.
 - ‘손콍 손질허레 읍서.’(네일숍), ‘흔 폰 두 폰 모이민 큰 돈 똔니께.’(은행), ‘소원성취 흡서.’(절), ‘어디 고장난 와수파?’(자동차 서비스센터) 등과 같은 표현이 그 예임.





<사진 12> 업종과 어울리는 다양한 제주어 간판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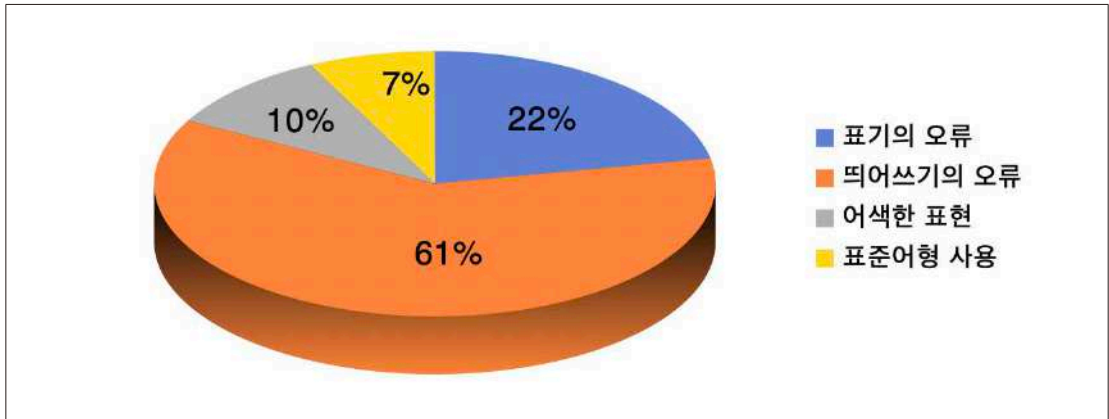
○ 간판에서 제주어를 활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제주어를 간판에 사용한 실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제주어 표기, 어색한 표현 등의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잘못된 제주어를 양산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함.

- 제주시 '신성로'의 제주어 간판은 주로 상호를 설명하는 부제로 활용되고 있는데 표기의 오류나 어색한 표현이 확인되고, 많은 가게에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음. 제주어 표기의 정확성 측면과 표현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됨.
-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의 제주어 간판에서는 기본형을 무시한 표기나, 띄어쓰기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제주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또한 '아랑조을거리'의 안내문의 경우 문장이 어색하고 제주어 표기가 잘못된 경우, 그 외 오타 등도 많아 제주어를 왜곡하거나 잘못 홍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수정이 시급해 보임.

○ 두 거리에서 조사한 제주어 간판은 총 191개임. 이 가운데 제주시 '신성로'의 제주어 간판 중 53개에서 제주어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에서 간판 12개, 안내문 29개에서 오류가 나타남. 191개의 간판 중 94개의 간판에서 오류가 확인되어 전체 49%의 오류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제주어 간판 두 개 중에 하나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결과임. (※하나의 간판에서 여러 개의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하나로 처리한 수치임.)

○ 제주어 간판의 현장 조사에서 수집된 사례 중 대표적인 오류 41개를 뽑아 정리하였음. (※<부록> 제주어 간판의 대표 오류 사례 수정(안) 참조.) 이를 유형별로 보면 제주어 표기와 띄어쓰기, 어색한 표현, 표준어 사용 등의 오류로 분류할 수 있음.

- 같은 오류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로 보았고, 동일 간판의 여러 개 오류는 대표 오류 형태로 분류하였음. '아랑조을거리'의 안내문은 하나에 여러 개의 오류 사례가 있어 제외하였음.
- 오류 유형을 보면, 제주어 표기의 오류 61%, 띄어쓰기의 오류 22%, 제주어 표현이 있는데도 표준어를 사용한 경우 7%, 제주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표현 10%로 나타남. 제주어 표기와 띄어쓰기 오류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 간판에 사용된 제주어 오류 유형

- 이러한 결과는 제주어를 간판에 활용할 때 업체가 개별적으로 제주어 표기나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지자체 중심의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함.

IV. 정책 제언

- 간판은 광고나 정보 제공, 표시의 기능 외에 거리 전체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정서적·시각적 기능을 담당하며 나아가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함.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을 통해 제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제주다움을 확산할 수 있음. 이에 아래와 같이 간판 등 공공의 광고물에서 제주어 사용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제주어 간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함.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제주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도민의 제주어 능력, 제주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간판에서의 제주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시행할 때 제주어 사용 실태 항목을 추가하여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검토 및 확인 작업을 수시로 해야 함.
- 옥외광고물에서의 제주어 표기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제주어 상호와 안내문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추가하며,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의 시행규칙에 있는 제주어 병기를 활성화하고 영역을 확대해야 함.
 - 옥외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어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옥외광고물 설치를 관리하는 행정 기관 공무원과 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제주어 교육을 진행해야 함.
 - 옥외광고물 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주시 ‘신성로’, 서귀포시 ‘아랑조물거리’의 사례와 같이 간판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옥외광고물 관련 교육과정에 국어와 제주어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광고물의 공공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담당 공무원, 제주어 상호를 옥외광고물로 설치하고자 하는 업주 등을 대상으로 제주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제주어 바꾸기를 위한 전문가 자문,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상담 창구 설치가 필요함.
 -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을 제작할 때 제주어 표기에 대한 상담이나 감수를 진행하여 표기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함.

- 공공언어로서의 간판 언어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짐. 이에 간판 제작 의뢰 전에 상호나 문구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거나 간판 설치 전에 감수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간판에 활용할 수 있는 제주어 상호나 설명문 등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주어 간판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어 어휘 목록, 업종별 상황 및 환경에 쓰일 수 있는 문장 표현 등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문장, 뜻풀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알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제주어 오류와 왜곡을 줄일 수 있음.
- 제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제주어 상호명을 사용하거나 제주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제주어를 가게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곳들이 확인되므로 <(가칭) 우리 가게 안내 제주어> 매뉴얼 및 책자 등을 제작·배포하여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주어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 **제주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제주어 간판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화 거리를 지정할 때 제주어 간판을 활용한 제주다운 거리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판 개선 사업을, 단순히 현 간판을 새 간판으로 교체하여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제주어 활용 간판으로 개선한다면 좀 더 제주다운 거리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임.

<부록> 제주어 간판의 대표 오류 사례와 수정안¹⁵⁾

번호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이유
1	고슬락 허우다	고슬락허우다.	띄어쓰기의 오류
2	곱닥 허우다	곱닥허우다.	
3	곱들락후게 머리 손질 헤수다.	곱들락후게 머리 손질헤수다.	
4	귀경와시냐	귀경 와시냐?	
5	노래는 들을만 허우다.	노래는 들을 만허우다.	
6	놀당갑서 쉬영갑서	놀당 갑서. 쉬영 갑서. /놀당 갑서. 쉬당 갑서.	
7	놀명쉬명	놀명 쉬명	
8	땅보레 읍서	땅 보레 읍서.	
9	뜻뜻헌게 먹기 참 좋앗수다.	뜻뜻헌 게 먹기 참 좋앗수다.	
10	맛중오난 냉기지말라	맛 중오난 냉기지 말라.	
11	바릇궤기 먹영갑서	바릇궤기 먹영 갑서.	
12	오널 술 훈 잔 흡주	오널 술 훈잔 흡주.	
13	왕복서!	왕 복서!	
14	잘도 맛중덴 후여	잘도 맛 중덴 후여.	
15	졸바로 베와보게 마쌌	졸바로 베와보게마쌌.	
16	좋은날 보레 읍서	좋은 날 보레 읍서.	
17	좋은디싸게 빌려드리쿠다!	좋은 디 싸게 빌려드리쿠다!	
18	충치 치료받으레 읍서	충치 치료 받으레 읍서.	
19	참 좋은거 하수다양	참 좋은 거 하수다양.	
20	코시롱헌 내음살 남수다.	코시롱헌 내음살남수다.	
21	코시롱 헌게 먹구정허우다.	코시롱헌 게 먹구정허우다.	
22	쿠시롱헌 냄새 남수다.	쿠시롱헌 냄새남수다.	

15) <부록>의 자료는 <표 1>과 <표 2>를 바탕으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정리하여 제주어 간판 내용 중 대표적인 오류 사례를 보인 것임. 두 간판 거리의 오류 사례를 모두 실지는 않았음.

번호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이유
23	흔저읍서	흔저 읍서.	띄어쓰기의 오류
24	흔저읍서예	흔저 읍서예.	
25	쿣대 흔 번 잡아보시쿠가	당구봉 흔번 잡아보시쿠가?	띄어쓰기의 오류, 외래어-순화어 수정 필요
26	돌코롬햄수다	돌코롬허우다.	어색한 표현
27	솜태웁수다	솜 태웁수다	
28	어떤거 도와드리우팡	어떤 거 도와드리카마씨?/어떤 거 도와 안네카마씨?	
29	지꺼지게 놀다 가젠?	놀당 가쿠과?	
30	○○에서 바로 온 거난 밍엥 드십씨!	○○에서 바로 온 거난 밍엥 드십서.	표기의 오류(된소리)
31	들어왕 볍씨	들어왕 볍서.	
32	흔저왕드십씨	흔저 왕 드십서.	표기의 오류(된소리), 띄어쓰기의 오류
33	꼬닥꼬닥○○	까닥까닥○○	표기의 오류(아래아)
34	뽕그랭이	뽕그랭이	
35	쌀, 담배 잡화 문딱 잇수다!	쌀, 담배, 잡화 문딱 잇수다!/잇수다!	표기의 오류(아래아), 표준어 사용
36	흔저읍서예	흔저 읍서예.	표기의 오류(아래아), 띄어쓰기의 오류
37	제주방원	제주방언	표기의 오류(오타)
38	아랑조을거리	알앙 좃을 거리/알앙좃을거리	표기의 오류(형태)
39	각종회 잇수다	하간 회 이수다	표준어형 사용
40	좃은 물건 많수다.	좃은 물건 하수다.	
41	깨끗하고 좃은집 잇수다.	깨끗허곡 좃은 집 잇수다./잇수다.	표준어형 사용, 띄어쓰기의 오류

참고 문헌

〈참고 문헌〉

강영봉 외(2010), 「제주지역 간판 문화의 특성을 위한 제주어 활용 방안 컨설팅」,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오승훈(2014), 「옥외광고물 상호의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22),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2023~2027)」.

〈참고 웹 주소〉

제주시청 누리집-제주시 소개-문양 디자인 소개(<https://www.jejudi.go.kr/intro/pattern/introduction.do>)

서귀포시청 누리집-서귀포 소식-새 소식(https://www.seogwipo.go.kr/news/seogwipo-news/sijung_news.htm)

서귀포시 천지동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local/cheonji/main.htm>)

〈참고 기사〉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점포 간판 새단장', 2015. 7. 24.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727>

헤드라인 제주, 강유미 기고, '제주 이야기 담은 신성로 간판 개선 사업', 2018. 5. 24.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68>

뉴스제주, 박가영 기자, '제주시, 신성로 간판 개선 사업 완료' 2018. 12. 26.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715>

한라일보, 이윤형 기자, '제주시 신성로 제주어 문양·표기 간판 거리 변모', 2018. 12. 26.

<https://www.ihalla.com/read.php3?aid=1545788346616970079>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9-0500 Fax. 064-751-2168
www.jri.re.kr